



고대안암병원뉴스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NEWS

발행인 | 김창덕 · 발행처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 · 전화 | 1577-0083 · Fax | 02)920-5770 · 홈페이지 | http://anam.kum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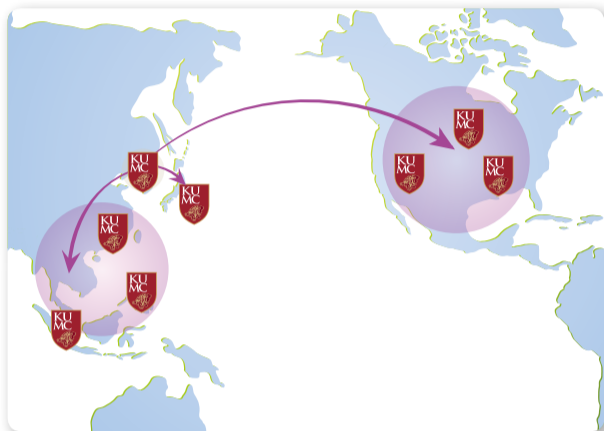
2010
July

07

발행 | 07월 22일 · 월간 · No.40

글로벌병원 출항의 신형엔진, 국제진료센터

JCI 인증획득과 세계화 마인드로 국제병원으로 힘찬 도약



고 있다. 진료실에는 전문의가 문진, 기본검진 등 1차 진료를 시행한 후 해당 전문과로 연계함으로써 진료의 질을 높이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국제진료센터, 발로 뛰는 외국인환자유치

안암병원은 지난 4월 '글로벌헬스케어 & 의료관광 컨퍼런스 코리아 2010'에 참가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안암병원 국제진료센터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싱가포르 파크웨이그룹, 텍사스 메디칼센터, 미국한인의사협회, 유로메디칼투어, 유니타드헬스보험사, 중국대련병원, 몽골국립병원, 카자흐스탄공화국병원, 상트의료기기, 반야트리스파 등 200여명의

해외바이어와 각국의 미디어관계자들과 비즈니스미팅을 펼쳤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환자유치마케팅 전략, 헬스케어산업의 글로벌화, 병원국제인증프로그램 현황과 추세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졌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한국국제의료협회(KIMA), 재미한인의사협회(KAMA) 3자간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MOU,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과 카자흐스탄 대통령의료센터간 보건의료분야 협력에 관한 MOU 체결도 이루어졌다. 최근 한국국제의료협회 부회장에 취임한 김창덕 원장은 美 의료관광협회장을 비롯한 에이전시, 일본에서 처음으로 JCI를 획득한 카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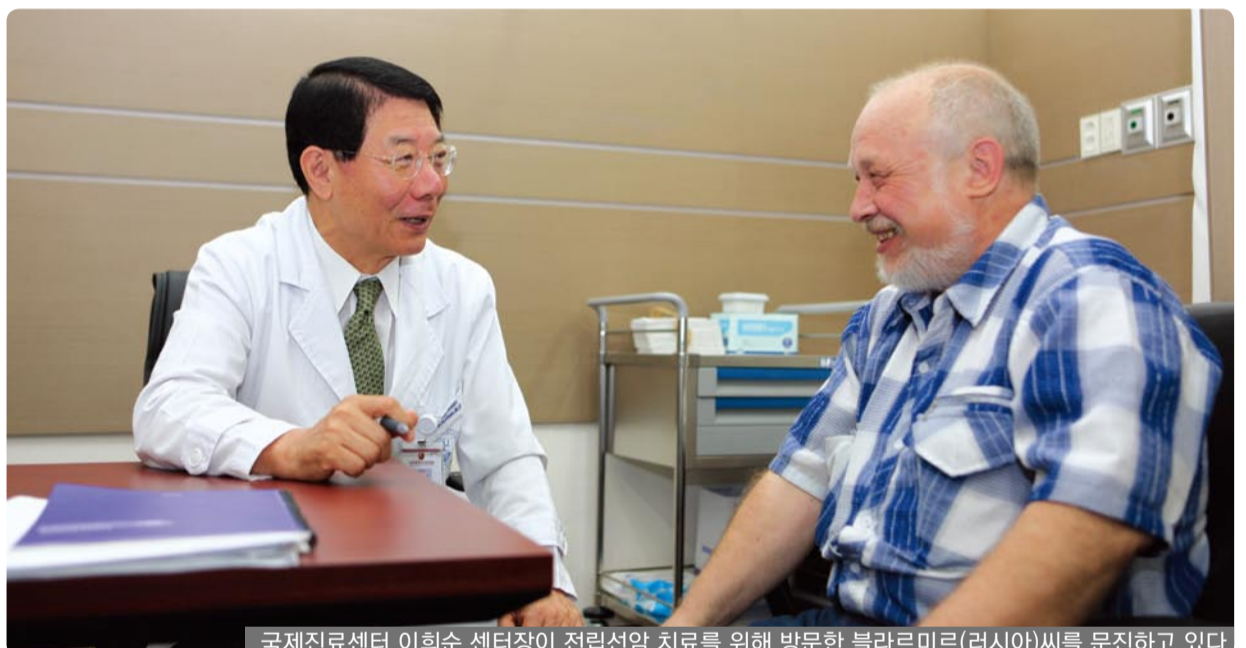
2면에 계속

넓어지는 글로벌의료시장을 잡아라

의료관광 분야의 발전이 의료분야의 서비스 형태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헬스케어를 신 성장동력사업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고있다. 의료관광과 관련한 통역, 마케팅, 코디네이터 등의 새로운 직업군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의료기관들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병원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국제진료센터, 차세대 외국인전문치료의 메카

고려대 안암병원은 국제진료센터(센터장 이희순)를 앞세워 외국인환자유치에 본격적으로 뜻을 올렸다. 국내 의료문화와 해외 의료문화의 개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국내환자들은 사소한 것에 불만을 갖는 반면 외국인들은 시스템에 불만이 높은것이 일반적이다. 이희순 센터장은 "외국인 만을위한 국제진료센터로 거듭나기 위해선 의료선진화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암병원의 JCI 인증으로 의료시스템은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환자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마도 몇 년 내 안암병원 국제진료센터는 국내 탑 수준의 외국인 전문 치료센터로 발돋움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안암병원 국제진료센터는 늘어나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의료센터(외국인진료팀, 의료관광광류팀)를 전문화해 의사, 간호사, 행정 등의 직원이 외국인 전담교수팀과 함께 외국인의 신속한 진료를 돕



국제진료센터 이희순 센터장이 전립선암 치료를 위해 방문한 블라르미르(러시아)씨를 문진하고 있다.



국제진료센터를 찾은 외국인 환자들

거점대학이 머무는 의학발전기금기부

10.06.03	엄창섭	₩ 10,000,000
10.06.03	김종석	₩ 5,000,000
10.06.04	김완배	₩ 5,000,000
10.06.07	김양인	₩ 10,000,000
10.06.07	김옥석, 김영덕	₩ 10,000,000
10.06.08	이태량	₩ 10,000,000
10.06.08	박영관	₩ 10,000,000
10.06.11	최미연	₩ 5,010,000
10.06.11	우희식	₩ 5,010,000

10.06.11	정광윤	₩ 20,000,000
10.06.16	손장욱	₩ 5,000,000
10.06.15	임도선	₩ 10,000,000
10.06.23	강석호	₩ 5,000,000
10.06.28	권용술	₩ 1,000,000
10.06.28	천준	₩ 5,000,000
10.06.28	05학번학부모회	₩ 10,175,394
10.07.07	박경화	₩ 10,000,000
10.07.15	유영진	₩ 6,000,000



고려대 안암병원은 JCI 인증을 획득한
세계가 인정한 가장 안전한 병원입니다.

1면에 이어



2009.8 JCI 인증획득 현판식

병원 관계자, 정부관계자들과 일일이 면담하면서 대한민국과 본원 의료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눈길을 끌었다.

먼저, 국제병원화의 가시적인 척도가 되는 것은 의료기관의 국내외적인 인증이다. 해당 의료기관이 국내외적으로 권위있는 인증을 받음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고대안암병원을 비롯하여 신촌세브란스병원, 가천뇌건강센터, 화순전남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이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의 JCI를 인증을 받아 글로벌 병원으로서의 도약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료평가위원회의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국내의료기관의 인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척도가 되는 것은 실제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이다.

외국인환자유치, 비결이 따로있다

성공적인 국제병원 사례를 찾아보면 찾아온 외국인 환자의 해당국가의 의료진을 채용함으로써 환자가 원활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찾아온 환자의 요구와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 2009년 5월 시행한 국내 미거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법 개정이후 지난 해 국내 해외 환자는 60,201명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임상 수준이 관련 의료관광 상품에 대해 좋은 인식을 주는데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다.


의료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정부정책 따라줘야...

이런 국제병원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의료개방, 특히 투자개방형 병원에 관한 논쟁과도 연결된다. 의료관광분야가 성장을 이뤘다고 해도 의료관광 선진국들에 비하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설 및 인력은 훌륭하지만 대부분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외부로부터의 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병원들이 자금난에 따른 어려운 경영을 할 수 밖에 없고 병원의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의료관광 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롭게 투자를 받아 주식회사 형식의 투자 개방형 병원을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논의에 따라 투자를 막고 있는 의료법을 개정하지는 압박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투자 개방형 병원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의견에 의해 경영방침이 좌우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 서비스의 방향이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으면 이에 따라 의료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투자 개방형 병원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세계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국제진료센터

고대안암병원은 현재 JCI 인증을 받으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신뢰를 받는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국제병원이 될 수 있는 발판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위상에 맞춰 내국인들은 물론 외국인들에게 훌륭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서비스 설계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병원으로의 진출에 따른 세계의 병원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안암병원 국제진료센터는 내·외형적 성장에 따라, 서비스의 질 발전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발빠르게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략을 실천으로 옮기게 된다면 선도적인 의료관광과 맞물려 국내에서 외국인환자를 가장 많이 치료하는 글로벌 병원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 집]

안암병원 교직원 7인이 그려낸 먹향의 한국화전

지난 7월 5일 고려대학교평생교육원 라이시움 1층 전시관에서 동양화반에 수강중인 원우회원들이 월암 정영남 교수님의 지도하에 자연경관과 수목들을 소재로 한국화 회원전을 가졌다. 그 중 고대안암병원 교직원 7인이 주옥같은 작품들을 한 폭의 화선지와 부채에 펼쳐 보였다.

이번 전시회는 일상 속에서 벗어난 자연의 멋스러움과 설악산, 도봉산봉우리의 위용과 넉넉함,




안암병원 교직원들이 그린 한국화 작품들과 작가들

폭포의 웅장한 경관들을 현대적인 붓질로 담채한 실경산수들에서 회원들의 개개인의 감각미와 섬세하게 풀어낸 숲과 산하들을 친숙한 정경으로 담아냈다.

그 중 중견작가로 활약 중인 영상의학과에 근무하는 김현태 부팀장의 역작인 설악산 금강굴 이 가장 큰 호평을 받았다.

한편 최태규 기사는 "한국화를 접하기에 앞서 아름다운 미를 끝없이 추구하고 창조하는 일, 혼을 담아내는 예술이라는, 너무나 큰 그릇은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울 수 없는 줄 알기에 더욱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전시기간 내내 안암병원 교직원 및 관계자 등이 많이 방문하여 큰 성황을 이뤘다.

본 전시회를 통해 동양화의 아름다운 화폭으로 전이됨을 통하여, 직장생활에 더 친근하게 호응하고, 맑은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름	출품작	소속
최태규	길 조	영상의학과
김현태	설악산 금강굴 외 1작품	
이경숙	개울 외 1작품	
황영숙	공원에서	건강진단센터
조규은	청류화폭(清流夏瀑)외 2작품	
박은아	봄	방사선종양학과
김수경	신록	임상약리학과

글 | 원내기자 조규은(종합건강진단센터) 방사선사

[스페셜 리포트]

세계적인 신약개발의 메카로 도약, 임상시험센터 완공

더 우수한 의료기술 개척 준비 완료



임상시험센터 연구공간으로 조성되는 500여평 규모의 증축공사 조감도 (건물 가운데 붉은색 부분)

임상시험센터 공간마련, 이제 실적으로 그 우수성 입증


지난 2009년 4월 30일, 고려대 안암병원 임상시험센터(센터장 인광호)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국가지역임상시험센터로 최종 선정되었다. 본격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1년이 넘는 공사기간이 지나, 7월 15일에 그 결실인 임상시험센터건물이 완공되어 개소식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안암병원은 임상시험만을 집중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게 되며 신약 개발 및 새로운 치료법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선도하기 위한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 국가지역임상센터로는 2010년에 선정될 기관을 제외하고 현재 총 14개 기관이며 여기에는 고려대 안암병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다. 위 기관들은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회사와의 연계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약개발 및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 성과를 내왔다. 더불어 세계적인 임상연구센터와의 공동 연구, 협력자 관계 체결 등으로 임상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선진 임상연구에 뛰어 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지역임상시험센터로 선정당시 안암병원 인광호 센터장은 국내 의료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다른 임상시험센터와의 차별성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국가지역임상시험센터로의 선정을 통해 안암병원의 임상시험 수준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로 삼고, 순환기계·혈액계통·환경대사계의 임상시험 등을 특화시킴으로써 다른 기관보다 더 전문적인 분야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런 전략에 맞춰 관련부분에 있어 우수한 기관과의 학술적, 기술적 교류를 모색하고 다양한 성과를 통해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다. 안암병원의 이러한 노력이 임상시험에 대한 기술적·시스템적 솔루션이라는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국내 임상시험수준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의료기관과 공조해 큰 성과 이룰터

이제 고려대 안암병원 임상시험센터는 세계적인 의료기관과 공동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연구 성과에 대한 본격적인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제약기업의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성과들과 국제적인 기관 간 협력체결을 통해 더 나은 기술과 체계적인 연구방법론들을 습득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국내 임상시험연구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고대 안암병원 공간지도 확 바뀐다

올 12월 까지, 심혈관센터 및 수술실 확장 완료 예정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김창덕) 내부 공간지도가 확 바뀐다.

우선, 현재 본관 5층에 증축중인 임상시험센터가 520평 규모로 오는 7월 15일 완공됨에 따라 연말 까지 임상시험센터 완공에 따른 공간재배치가 본격 진행될 예정인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심혈관센터와 수술실 확장이다. 우선, 현재 임상시험센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본관 1층 응급의료센터 앞 임상시험센터 입원실(80여평)과 연구동 4층 교수실(200여평)이 완공되는 임상시험센터로 입주한다.


이어서, 현재 교수연구동 4층에 위치한 행정사무실이 임상시

험센터 입원실로 이주하면, 올해 10월에 행정사무실 100여평에 심혈관센터 외래부문이 이동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심혈관센터 외래공간은 12월경 최신식 대규모 심도자시술실로 탈바꿈하게 되어, 심도자실을 추가확보하게 된다.

또한, 새 임상시험센터로 이동하는 연구동 4층 교수실(200여평)은 리모델링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수술실(확장공간 230여평)로 탈바꿈되어 수술방 5개가 추가될 예정이다.

김창덕 병원장은 “안암병원은 지난해 국가지정임상시험센터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고, 병원의 경영지표 또한 꾸준

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병원만의 경쟁력을 키워 나갈 충분한 에너지가 비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임상시험센터가 본격 가동되고 심혈관센터 및 수술실이 확장되면 더욱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안암병원은 정부 지원금 40억원과 자체예산 40억원, 서울시 지원금 4억원을 5년간 투입해 부가가치가 높은 신약개발 및 신치료술 개발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 비용은 전액 임상시험 전용으로 사용해 시설 및 장비, 운영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확보 등에 투자된다. 

병원소식

고대의료원, KOICA와 손잡고 해외의료원조 동참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손창성)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박대원)과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하고 해외 의료 무상원조 등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역량 강화에 나섰다. 고려대의료원과 KOICA는 7월 9일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KOICA 본청에서 개도국 대상 보건의료 분야 국내 초청연수 및 현지 연수, 전문가 파견, 개발조사사업 및 프로젝트 사업 등 무상기술협력 사업, 개도국에 대한 보건의료 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 국제의료분야 정보 상호공유를 주요 골자로 하는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했다. KOICA 박대원 이

사장은 “세계적인 의료자원을 가지고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고대의료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무상원조 사업의 전문성과 효과를 한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창성 의무부총장은 “고대의료원은 세계적인 재난 구호현장을 비롯해 의료사각지대를 찾아 해외의료봉사단을 파견해 나눔과 봉사의 이념을 실현해 왔다”면서, “앞으로 해외의료원조를 비롯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대의료원, 일광그룹으로부터 1억원 기부받아



의료원은 7월 18일 오후 5시 그랜드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어린이심장병 및 소아암 환자의 치료비에 써달라며 일광그룹(회장 이규태)으로부터 1억원을 기부 받았다. 이날 기부식과 함께 열린 ‘희망과 사랑나눔 열린음악회’에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어린이 환자 들을 위한 치료비 모금행사가 진행됐으며, 가수 김태우 김범수 캔 애프터스쿨 다비치 강석우 등이 공연을 펼쳤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모인 후원금은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의 수술비로 쓰일 예정이다. 손창성 의무부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광그룹의 의료비지원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심장병 어린이와 소아암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신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985년 설립된 일광그룹은 정릉실버복지센터, 마하나임데이케어센터 등을 통해 지역 복지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핵심사업은 물론 문화예술 및 교육사업 등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오고 있다.

성공적인 혈당관리, 합병증 없는 건강한 미래



안암병원 당뇨센터(센터장 최동섭)가 6월 11일 오후 본원 대강당에서 ‘성공적인 혈당관리, 합병증 없는 건강한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당뇨 공개강좌에 300여명의 환자들이 몰려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최동섭 당뇨센터장의 인사말 및 혈당관리를 위한 당부로 시작한 이날 강좌에서는 김신곤 교수의 ‘당뇨합병증, 알아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주제의 특강을 비롯해 김주연 영양사와 신은총 당뇨간호사의 식이요법과 당뇨발 예방법에 대한 특강과 함께 무료 혈당, 당화혈색소, 혈압 측정과 함께 상담이 이루어졌다. 정기적인 공개강좌 및 당뇨교실을 통해 당뇨 예방 및 치료에 앞장서고 있는 당뇨센터는 환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범국민 당뇨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당뇨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인 만큼 환자 간에 건강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의지하는 것이 좋다. 당뇨센터는 환자의 건강 유지를 위한 다양한 치료방법을 제시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심사업무의 과학화와 효율화 이를 방안모색



안암병원(원장 김창덕)은 6월30일 오후 5시 8층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심사업무의 패러다임’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전 예방적 진료비 적정화 및 평가기준 강화’를 골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

원) 관계자가 연자로 나선 이번 설명회에서는 ▲진료비 청구·심사현황, 지표현황(심평원 이형심 심사차장) ▲평가현황(심평원 박영자 심사부장) 등의 두 가지 연제가 발표됐다. 건강보험전담교원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진, 간호사, 보험심사팀, 원무팀, 고객센터 시스템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속에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심사업무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평을 받았다.

투약오류 제로(Zero)! 예방교육 성료



안암병원 간호부(부장 이은숙)는 질·업무 향상위원회에서 투약오류예방을 위한 개선 전략에 대한 교육을 6월 28일(월) 8층 중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100여명의 병동 간호사들이 참석해 열린 호응 속에 진행된 이번 교

육에서는 김혜경 병동간호팀장이 강사로 나서 ‘투약 시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 ‘투약 절차 중 유의사항 및 발생 오류가 있는 투약오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전략(지침)’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간호사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등 투약오류(Medication Errors) 전반에 대한 폭 넓고 심도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한 간호사는 “나의 부주의로 야기될 투약오류를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하다”며 “투약오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소중한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간호사 뷰티교실



간호부는 6월 29일 오후 12시와 3시 30분 2차례에 걸쳐 소회의실에서 원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나를 아름답게 가꾸는 비결! 뷰티교실’을 마련했다. 이번 뷰티교실은 안암병원 간호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성북구 간호사회(회장 조윤수, 안암병원 간호관리팀장)가 준

비한 것으로 지난 3월에 이어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 강사를 초빙하여 간호사들에게 분위기와 장소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여름철 시원하면서도 이미지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메이크업 방법들을 소개했다. 뷰티교실에 참석한 한 간호사는 “화장이 어렵게만 느껴

졌었는데, 오늘 배운 화장기법으로 어색하지 않고 충분히 아름답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서 좋다”며 “앞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예뻐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병원소식

'유헬스케어 심포지엄' 개최해 최신지견 나눠



의료원 유헬스케어사업단(단장 강윤규)은 6월 22일 오후 1시 30분 안암병원 대회의실에서 '유헬스케어 심포지엄' 을 개최했다. 의사, 간호사, 병원행정 등의 의료계종사자와 정부, 정보통신 및 의공학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유헬스케어와 관련된 최신기술을 비롯한 유익한 정보들이 공유됐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각종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원격으로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u-헬스 기술이 인류에게 종전과 다른 차원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크게 육성할 수 있

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것이라 개최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심포지엄에서는 ▲상호운용성을 위한 유헬스 기반기술 소개(서울의대 최진욱 교수) ▲SKT컨소시움의 스마트케어서비스 사업추진 현황(삼성전자 정진한 책임연구원) ▲혈액진단칩의 중요성과 미래(광주과학기술원 양성 교수) ▲만성질환에서의 유헬스 사업의 시장전점과 서비스 사례(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조재형 교수) 등의 다양한 연제가 발표됐으며, 이후 참석자들은 의료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에 관한 질의 및 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안암병원 간호부, 제 9차 중환자 간호 상급과정 성료!



간호부(부장 이은숙)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안암병원 중회의실에서 '제 9차 중환자 간호 상급과정' 수료식을 거행했다. 호흡기계, 소화기계, 심혈관계, 뇌혈관계, 신경계 등 각종 질환에 대한 해부·병태·생리 이론에서부터 임상질환의 진단 및 치료과정 전반에 걸쳐 실제 중환자실에서의 실습교육까지 폭 넓고 심도있는 교육이 이번 중환자 간호 상급과정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수료식은 원내·외 간호사 25명에게 병원장 명의의 수료증서

를 수여하며 진행되었고, 이후 성적 우수자 3인(1등 : 본원 내과CU 이혜림, 2등 : 길병원 최혜진, 3등 : 본원 82병동 김문숙)에게 병원장 명의의 상장을 수여하며 서로를 축하하고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을 수료한 한 간호사는 "막상 수료식을 마치고 나니 그동안 공부하며 지나온 시간들이 떠올라 감회가 새롭다" 며 "힘들게 공부한 만큼 더욱 값지게 나눌 수 있도록 지식에 근거한 전문간호를 아낌없이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고 싶다" 고 말했다. 안암병원 간호부는 중환자 간호과정뿐 아니라 분야별 전문간호과정을 운영·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간호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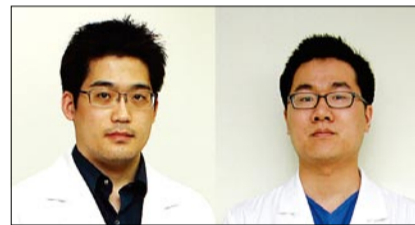
'2010 상반기 일반직 정년퇴직자 감사장 및 기념품' 전달



안암병원은 7월 2일 오전 9시 병원장실에서

정년을 맞이한 교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다. 감사장과 함께, 20년 이상 근무한 총무팀 이학선·영양팀 김봉덕 일반업무원에게는 금메달 12돈과 상금60만원, 10년이상 근무한 영양팀 고금순·은정숙, 간호부 심영숙 일반업무원에게는 금메달 8돈이 각각 수여됐다.

의무기록 정리 우수전공의 포상



안암병원은 의무기록 정리 우수 전공의를 선정해 포상했다. 선정된 의무기록 정리 우수 전공의로 외과 나영현 전공의와 내과 김우현 전공의로 이들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포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전교직원 화합의 맥주파티, '안암병원 호프데이'



고려대 안암병원이 7월 7일 오후 6시 의대 앞 잔디광장과 햇살 나눔정원에서 전교직원이 함께하는 맥주파티 '호프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호프데이에는 500여명의 교직원이 함께 생맥주와 바베큐를 즐기며 서로를 격려하고 병원의 지속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창덕 원장, 정광윤 진료부원장, 이기형 기획실장, 오유환 교육수련위원장, 김병균 사무국장, 권병창 경영관리실장, 이은숙 간호부장은 광장을 돌며 교직원과 일일

이 건배제의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특유의 스킨십경영, 소통경영을 이어갔다. 김창덕 병원장은 "오늘의 병원발전은 자신의 맡은 바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면서, "헌신과 희생으로 고대병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작은 부분 하나까지 세심하게 꼼꼼히 살피겠다. 하나된 마음으로 세계 제일의 병원을 만들어가자" 고 말했다.

71명 학도병의 감동실화. 6월, 그들을 기억하라!

포화속으로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불만한 전쟁 영화를 소개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잔인했던 6월의 그날이 돌아왔다. 조국애만으로 희생을 감내하고 참혹한 전장에 뛰어든 장병들을 회고하며 영화 '포화속으로'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영화 '포화속으로'는 1950년 8월 남북전쟁에서 가장 참혹하게 끝났던 포항여중 전투를 배경으로 막을 올리며 어린나이에 학생 신분으로 군번도 부여받지 못한 채 전장에 뛰어 들어야 했던 71명 학도병들의 실화를 다루고 있다. 따스한 가족의 품에 되돌아가지 못하고 차가운 흙속에 묻혀버린, 60년이라는 잔인한 세월 속에 사라져간 어린

장병들을 기억하며 영화는 고막을 찢고 동족에도 찢는 가혹한 그날의 충성을 전한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전쟁이 시작된다. 영화 '포화속으로'는 군복도 채 갖춰 입지 못한 채 소총 한 자루만을 가지고 충성과 박격포가 빗발치는 포화 속에 뛰어든 어린 학도병들의 모습을 담아 세월에 묻혀 잊혀져가는 이들을 존재를 전한다. 비록 47명의 전사자와 17명의 부상자라는 비참한 결과를 남긴 채 끝내 나버린 전투였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심만을 가지고 희생을 치른 어린 장병들의 값진 목숨을 기억하기에는 충분한 이야기가 되리라 본다.



친절리더 칼럼

무엇이 친절함인가?

이제 닳아가는 STOP~!!

온전히 자신에 대해 책임지기~!!

저는 오늘 친절함에 대해서 글을 적어 보려고 합니다. 순간 '무엇이 친절함이지?' 라는 생각과 함께 웃음, 배려, 환한 인사, 그리고 정중한 말투가 떠오르더군요. 그런데 일, 상황, 사람들에게 치이다 보면 웃음은 굳어지고, 배려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변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순간 자신들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바뀌는 행동이겠지만,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을 의도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까지 미치더군요.

저는 얼마 전 개구우먼 조혜련씨가 쓴 미래일기라는 책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삶에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루를 계획하라' 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아래와 같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1. 오늘 나는 오전 외래에 오시는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분에게 "정말 치료에 잘 견디시고 늘 밝게 지내는 것 같아 볼 때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하자 "간호사님의 그 말을 들으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고 더 잘 먹고 더 즐겁게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야 겠다고 생각이드네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동료 ○○○한테,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고 고맙다." 라는 말을 했더니 그 동료도 환하게 웃으면 "나도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너무 든든하고 감사하다" 라는 대답을 들어서 감동 받았습니다.

이처럼 미리 미래일기를 써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순간 일어나는 짜증, 불만을 가라앉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바뀌겠지만, 조금 지나면 친절함이라는 옷을 습관처럼 입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절함이라는 옷을 습관처럼 입기 전 까지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행동은 타인을 닳아하는 행동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친절함과 배려라는 행동으로 고려대 안암병원을 가득 채워, 이 병원에서 일하고,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지길 꿈꿔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글 | 친절리더 이 미 경 (암센터 코디네이터)

문화 소개

폴리처상 사진전, 그곳엔 어떤 사진이?



순간의 역사 역사의 순간, 가장 위대한 사진가들의 이야기

폴리처상은 '언론 노벨상' 으로 불린다. 헝가리 태생의 미국 신문왕 조셉 폴리처가 컬럼비아대에 200만 달러를 기부해 1917년 창설됐다. 사진 부문은 42년부터 시작됐다. 언론(14개)·문학(6개)·음악(1개) 부문에서 상을 준다. 폴리처상의 상징인 금메달엔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과 인쇄공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런 세기(世紀)의 사진들을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 추가된 1998년 이후 수상작들은 아직도 생생한 국제사회 이슈들을 되새기게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서 발생한 세계무역센터 폭발사건은 지난 10여 년간 무려 3번이나 폴리처상에 등장할 만큼(2004년, 2005년, 2006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6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순간의 역사, 역사의 순간-폴리처상 사진전' 이 열린다. 중앙일보·스톤브릿지캐피탈·YTN이 주최하고, 세계사에 반향을 일으킨 145점의 사진이 눈앞에 펼쳐진다.



박주영 선수와 고대병원 환자들의 유쾌한 만남!!!

박주영 선수, 고대 안암병원 찾아 '희망의 사인볼' 선물



한국 축구대표팀의 원정 월드컵 사상 첫 16강 진출을 건인한 태극전사 박주영 선수가 어린이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병동을 찾아 '희망의 사인볼'을 선물했다. 7월 5일 오전 11시 30분 박주영 선수가 환한 미소를 보이며 소아병동에 나타나자 어린이 환자들은 무거운 병

환을 모두 떨쳐버리기도 한 것처럼 즐거워하며 박 선수에게 반가움을 표현했다. 박주영 선수는 병동에서 50여명에 달하는 입원환자들을 위해 일일이 소형 자블라니(남아공월드컵 공인구)에 자신의 사인을 담아 선물하는 한편, 보호자와 내원객들의 몰려드는 사인요청과 사진촬영 요구에도 모

두 응해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박주영 선수는 지난 6월 23일 남아공 더반에 위치한 모저스 마비다 경기장에서 치러진 나이지리아전에서 절묘한 프리킥을 성공시키며 사상 첫 원정 16강을 이끄는 활약을 펼친바 있다.

의학정보

마음까지 녹 녹한 장마,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



본격적인 장마철이다. 물기를 잔뜩 머금은 공기가 마음까지 녹 녹하게 한다. 장마철 평균 습도는 80~90%. 사람이 가장 쾌적하게 여기는 습도 60% 보다 높고, 장마철 불쾌지수는 80%가 넘는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장마철엔 또 각종 곰팡이나 세균 등이 쉽게 증식해 주위를 청결히 하고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한다. 음식물이 세균이나 세균의 독소에 오염되기 쉬운 계절이라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등의 수인성 전염병과 식중독의 발생률이 높고 각종 피부질환, 호흡기 알레르기질환도 호발한다. 내리누르는 무거운 기압은 우울증과 관절염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 식중독(배탈·설사)

고온 다습한 장마철에 가장 우려되는 질병이 바로 식중독이다. 식중독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으로 오염된 음식을 먹거나 음식에 들어 있는 특정 물질에 의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수해가 발생하면 수도물 공급 중단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해 배탈 설사 등 식중독 발생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장마철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세균은 포도상구균으로, 주로 조리하는 사람의 상처 부위에 번식하다가 음식을 통해 옮겨진다. 포도상구균 자체는 끓이면 소멸되지만 이 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끓여도 없어지지 않으므로 음식물이 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끓인 음식이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은 다른 식중독에 비해 증상이 빨리 나타나 보통 1~6시간 내에 구역, 구토와 설사를 유발한다.

◆ 장티푸스

환자의 70% 이상이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된다. 장티푸스는 10~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열이 40~41℃ 까지 올라가면서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을 동반한다. 환자의 절반가량은 설사, 나머지는 변비 증상을 보인다. 나이가 많을수록 만성 보

균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방백신은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 따라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50~60대 연령층의 식품위생접점업소 종사자, 급수시설 관리자 등은 예방접종을 받는 게 좋다.

◆ 이질

용변 등으로 오염된 물과 변질된 음식을 통해 발병하며 전염성이 강하다. 그러나 모유를 먹는 어린이는 잘 걸리지 않는다. 증상은 심한 복통, 고열, 구토, 식욕부진과 용변시의 통증 등이다. 점액성 또는 피가 섞인 설사를 하는 경우도 흔하다. 어린이 환자의 40% 정도에서 경련, 두통, 환각상태 등 신경계 이상이 나타난다. 가장 흔한 합병증인 탈수로 인해 신부전증까지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한다. 치료법이라고 특별한 것은 없다. 수분을 보충해주면서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정도이다. 식사 전후와 화장실에 다녀와서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 우울증

습기가 높고 햇빛을 볼 수 있는 날이 적어지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쉽게 화를 내게 된다. 평소 우울증이 있다면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여름 장마철의 경우 식욕저하,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초조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여름철 우울증 환자의 경우 겨울철 보

다 더 많은 자살사고나 자해 등이 나타난다. 또한 일조량이 감소하면 눈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줄어들어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나면서 수면 및 진정작용을 유발해 침울한 기분이 든다. 이럴 경우 집안 분위기를 바꿔 기분을 전환하고 집안의 다습하고 냉한 기운을 없애기 위해 보일러를 가동해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알레르기질환

장마철에는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도 악화된다. 알레르기 질환의 주된 원인인 집먼지 진드기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이런 집먼지 진드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공청소기로 집안을 청소하고 침구 옷 커튼 등은 빨래할 때 뜨거운 물에 삶아야 한다. 천식이 있다면 최소한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흡입기로 기관지 확장제나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흡입하는 게 좋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으로 자주 습기를 제거함으로써 습도가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움말 | 가정의학과 이승환 교수
의뢰 | 02)920-5104

